

뉴질랜드 퇴직연금(KiwiSaver) 가입자의 운용상품 변경 행태

정인영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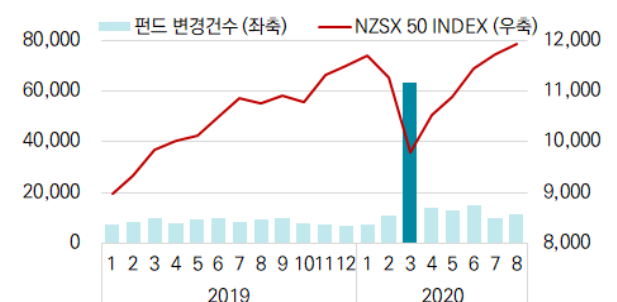
요약

코로나19 확산 기간 중, 뉴질랜드 퇴직연금(KiwiSaver) 시장에서는 청년층(26~35세)을 중심으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펀드 변경이 크게 증가함. 금융시장청(FMA)은 이러한 퇴직연금 가입자의 펀드 변경 행태를 불확실한 시기에 통제력을 갖기 위한 행동편향의 결과로 해석함. 그러나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하는 퇴직연금운용에 관한 의사결정을 패닉상태에서 내리는 것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연금사업자와 금융감독당국은 가입자의 퇴직연금자산 운용결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뉴질랜드 금융시장청(FMA)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최고조에 달한 시기에 퇴직연금(KiwiSaver)¹⁾ 가입자들의 펀드 변경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²⁾

- 2020년 2~4월 중(이하, 코로나19 확산 기간), 조사대상자³⁾의 3.9%가 가입되어 있던 펀드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경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7배 증가함
 - 총 펀드 변경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3.4배 증가하였으며, 특히 주가 하락폭이 컸던 2020년 3월 펀드 변경 건수는 전년 동월 대비 6.4배 증가함
- 총 변경 건 중 70.5%는 저위험펀드로, 11.0%는 동일한 위험을 보유한 펀드로, 18.5%는 고위험펀드로의 변경으로 보수적인 자산운용 방식에 대한 선호가 강하게 나타남⁴⁾

〈그림 1〉 뉴질랜드 주가지수 변화와 퇴직연금펀드 변경 건수
(단위: 건)



자료: PWC(2021. 6); 연합인포맥스

〈표 1〉 퇴직연금펀드 변경 건수(전체 vs. 26~35세)
(단위: 건)

구분	전체 연령대		26~35세	
	총 펀드 변경 건수	저위험펀드로 변경 건수	총 펀드 변경 건수	저위험펀드로 변경 건수
2019년 2~4월	26,338	5,828	5,195	605
2020년 2~4월	88,112	41,148	26,057	12,694
전년 동기 대비 증가비	3.4배	7.4배	5.0배	21.0배

자료: PWC(2021. 6)

- 1) KiwiSaver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 은퇴저축상품(work-based retirement savings scheme)으로, 18세에서 65세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은 자동 가입되며,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임금의 최소 3%를 보험료로 부담함(<https://www.ird.govt.nz/kiwisaver>)
- 2) FMA(2021. 6. 16), "KiwiSaver Switching Research"
- 3) KiwiSaver 가입자 150만 명(표본)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2020년 2~4월 중 전체 조사대상자 중 58,356명이 88,112회 펀드를 변경함
- 4) 총 펀드 변경 건수 중 변경의 방향을 알 수 있는 표본은 58,359건으로, 비중은 이를 기준으로 산출함

○ 특히 청년층(26~35세)을 중심으로, 은행을 통해 가입하였거나 금융자문(Adviser)을 이용하지 않은 가입자의 펀드 변경이 현저하게 많았음⁵⁾

- 전체 조사대상의 23.0%를 차지하는 26~35세 그룹이 전체 저위험펀드로의 변경 건 중 30.8%를 차지함⁶⁾
 - 코로나19 확산 기간 동안 26~35세의 펀드 변경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5.0배 증가하였고, 이 중 저위험펀드로의 변경이 이들 그룹의 전체 변경 건 중 75.4%를 차지함⁷⁾
- 아울러 은행을 통해 퇴직연금에 가입하였거나 금융자문을 이용하지 않은 가입자의 펀드 변경이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였음
 - 은행을 통해 퇴직연금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저위험펀드로의 변경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6.1배 늘어났으며, 이는 타 금융기관 가입자의 증가비(6.2배)를 크게 상회함
 - 한편 금융자문을 이용하지 않는 가입자의 경우 저위험펀드로의 변경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1배 증가하며, 금융자문 이용 가입자의 증가비(4.3배)보다 현저하게 많았음⁸⁾

〈표 2〉 26~35세 가입자의 저위험펀드로의 변경 건수

〈은행고객 대비 비은행고객〉			〈금융자문 이용자 대비 미이용자〉		
(단위: 건)			(단위: 건)		
구분	은행고객	비은행고객	구분	금융자문 이용자	금융자문 미이용자
2020년 2~4월	11,737	957	2020년 2~4월	489	12,129
전년 동기 대비 증가비	26.1배	6.2배	전년 동기 대비 증가비	4.3배	25.1배

자료: PWC(2021. 6)

자료: PWC(2021. 6)

○ 금융시장청(FMA)은 이러한 퇴직연금펀드 변경행태를 불확실한 시기에 통제력을 얻기 위한 일종의 행동편향(Action Bias)의 결과로 해석함

- 행동편향은 사람들이 상황을 통제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무언가를 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하에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충동을 느끼는 현상을 의미함⁹⁾
- 특히 젊은 계층일수록 현저성(Salience), 쏠림현상(Herding, Social Norms), 심적회계(Mental Accounting) 등 행동편향이 더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됨¹⁰⁾
 - 젊은 계층은 타 연령층에 비해 언론보도나 소셜미디어에 더 빈번하게 노출되는데, 미디어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

5) PWC(2021. 6), "Lockdown: A review of KiwiSaver member behaviour in response to COVID-19"

6) FMA(2021. 6. 17), "High level of KiwiSaver switching during COVID-19 driven by young people"

7) 2019년 2~4월 중, 26~35세 그룹의 저위험펀드로의 변경은 전체 변경 건 중 16.4%에 불과하였음

8) 특히 26~35세 가입자 중 금융자문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는 5.6%로 그 이상의 연령층에 비해 자문이용 비율이 절반 미만임

9) <https://www.behavioraleconomics.com/resources/mini-encyclopedia-of-be/action-bias/>

10) 현저성 편향(Salience Bias)은 주의를 끄는 항목이나 정보에 집중하여 이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심적회계(Mental Accounting)는 암묵적으로 돈을 심리적 계정, 즉 목적이나 용도별로 배분하여 각각 다른 가치를 부여하고 다르게 취급하는 경향을 의미함; 변혜원(2015), 「보험수요와 행태경제학」, 『테마진단』, 보험연구원 등

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면서 공포감이 조성되고 현저성 효과가 발생함

- 또한 주식시장 붕괴에 대한 낮은 경험치, 펀드계좌로의 접근성 및 펀드 변경 용이성 등이 영향을 미침
- 은행에 퇴직연금계좌를 가지고 있는 가입자의 펀드 변경 건수가 많은 것은 은퇴준비를 위한 퇴직연금을 예금과 동일한 일상적인 자산으로 간주하는 심적회계가 작동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은행을 통해 KiwiSaver에 가입한 사람들은 예금계좌와 함께 잔액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음

○ 그러나 패닉상태에서의 투자의사결정은 장기적으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연금사업자(금융기관)와 금융감독당국은 가입자의 퇴직연금자산 운용 결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¹¹⁾

- 코로나19 확산 기간 동안 저위험펀드로 변경한 가입자들 중 9.1%만이 '20년 8월까지 고위험펀드로 재변경한 것으로 나타나, 상당수가 현상유지편향으로 인해 장기적인 저축목표와 일치하지 않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임
- 단기적 사건으로 인한 펀드 변경 결정은 장기수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이에 연금사업자는 투자자가 투명한 정보에 입각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올바른 선택이 가능하도록 시장혼란에 대비한 정기적인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연금사업자는 펀드 변경 신청시점과 펀드 변경 시행시점 간 차이, 추가적인 손실 발생 가능성, 향후 시장상황 변동이 퇴직연금자산 가치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 또한 연금사업자가 사전에 조사한 가입자의 위험허용도(Risk Tolerance)와 가입자의 실제 감내수준 간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금융감독당국은 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투자자의 펀드 선택 지원 방식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11) FMA(2021. 6. 16), "KiwiSaver Switching Research"